

도움의 '손'

손흥민 1골 2도움 맹활약
토트넘, 4-1 뉴캐슬 대파
통산 84도움 기록
구단 통산 최다 도움 1위



'캡틴' 손흥민이 1골 2도움으로 맹활약해 소속팀 토트넘(잉글랜드)이 6경기 만에 무승 탈출에 성공하는 데 앞장섰다.

토트넘은 11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16라운드 홈 경기에서 뉴캐슬을 4-1로 대파했다.

손흥민은 토트넘이 3-0으로 앞서던 후반 40분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직접 차 넣어 팀 승리에 췌기를 박았다. 이번 시즌 손흥민의 10호 골이다.

손흥민은 이날 4일 강호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와의 1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시즌 9번째 골을 넣은 뒤 1주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해 열린 홈란(맨시티-14골),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11골)에 이어 EPL 득점 순위 3위를 지켰다.

16경기 만에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한 손흥민은 EPL 통산 113골을 기록했다.

아울러 손흥민은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 기록을 세웠다.

웨인 루니, 프랭크 램퍼드, 세르히오 아궤로, 해리 케인, 티에리 앙리, 사디오 마네에 이어 EPL 역대 7번째 대기록이다.

득점에 앞서서는 토트넘의 선제공격과 추가 골의 발판을 놓아 시즌 3, 4호 도움까지 작성하며 올 시즌 전체 공격 포인트 14개를 쌓았다.

손흥민은 또한 토트넘 통산 84도움으로 프리미어리그(PL) 출범 후 모든 대회 통틀어 구단 통산 최다 어시스트 1위에 올랐다.

손흥민은 뉴캐슬 대파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며 경기 최우수선수(MOM)로도 선정됐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11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6라운드 홈 경기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1골 2도움을 기록한 뒤 팬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리그 5경기 연속 무승(1무 4패)의 수렁에 빠졌던 토트넘은 손흥민의 활약을 발판으로 6경기 만의 귀중한 승리를 추가하고 5위(승점 30)를 지키는 한편, 4위 맨시티(승점 33)를 승점 3차로 뒤쫓았다.

뉴캐슬은 승점 26에 머물러 7위로 하락했다.

손흥민은 이날 '원톱'이 아닌 4-2-3-1 포메이션의 2선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다. 대신 히샤리리송이 최전방에 섰다.

토트넘은 전반 26분 손흥민의 날카로운 패스에

이은 데스티니 우도기의 득점으로 포문을 열었다.

공을 몰고 슬금슬금 왼쪽 페널티 지역 깊숙이 침투한 손흥민은 골라인 근처에서 문전의 우도기를 향해 왼발로 낮고 강하게 패스를 찰라 넣었고, 우도기가 논스톱으로 왼발로 밀어 넣었다.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38분에도 도움을 추가했다.

왼쪽 구석에서 공을 잡고 골라인을 따라 천천히 박스 안으로 침투한 손흥민은 뉴캐슬의 키런 트리

피어와의 일대일 상황을 발제간으로 이겨내고 골대 정면의 히샤리리송을 향해 컷백 패스를 넣었다.

히샤리리송이 왼발 인사이드로 푹 건드린 공은 골대 상단 구석을 찰라.

후반 15분에는 페드로 포로가 오른쪽 미드필드에서 최전방을 향해 길게 띄운 패스를 히샤리리송이 왼발로 마무리해 멀티 골을 작성했다.

3-0으로 앞선 후반 38분, 페널티 지역으로 돌파하던 손흥민을 뉴캐슬 골키퍼 마르틴 두브라브카가

무리하게 막아 넘어뜨렸고,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손흥민은 2분 뒤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오른 발로 깔끔하게 성공해 팀의 승리에 췌기를 박았다.

후반 45분이 지나자마자 제이미 돈리와 교체된 그라운드를 나오는 손흥민을 향해 홈 관중은 기립 박수를 보냈다. 뉴캐슬은 경기 종료 직전 조엘린통이 오른발로 한 골을 만회하는 데 그쳤다.

/연합뉴스

KIA는 '빈손'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23 한국프로야구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혜성(2루수), 박건우(외야수), 노시환(3루수), 양의지(포수), 손아섭(지명타자), 구자욱(외야수), 홍창기(외야수), 오지환(유격수). /연합뉴스

KIA 타이거즈가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빈손'으로 돌아왔다.

2023 신한은행 SOL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다.

KIA에서는 투수 양현종·이리, 2루수 김선빈, 유격수 박찬호, 외야수 이우성·소크라테스, 지명타자 최형우 등 7명이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단상에 오른 주인공은 없었다.

박찬호가 이번 시상식에서 가장 '박빙의 승부'를 펼친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투수 부문 골든글러브는 '20승-200탈삼진' 기록과 함께 다승·평균자책점·탈삼진 부문 1위를 싹쓸이한 NC 외국인 투수 에릭 페디에게 돌아갔다.

KBO 시상식에서 MVP로 우뚝 섰던 그는 이번 없이 골든글러브까지 차지했다. KBO리그 시상식의 시작과 끝을 화려하게 장식한 그는 내년에는 메이저리그 시카고 화이트삭스 유니폼을 입고 뛰다.

두산 베어스 안방으로 돌아간 양의지는 개인 통산 9번째 수상 영예를 안았다. 포수로는 8번째, 지

골든글러브 10명 수상
KIA 1명도 수상 못해

명타자 포함 9번째 골든글러브다.

이날 수상으로 양의지는 시상자로 나선 김동수 서울고 감독을 제치고 포수 부문 최다 수상 신기록을 만들었다. 양의지는 또 이날 수상으로 이승엽 두산 감독의 KBO리그 통산 최다 골든글러브 수상 기록(10차례)에 한 발 더 다가갔다.

1루수 부문 수상자로는 29년을 기다린 LG의 우승을 이끈 오스틴이 선정됐다.

271표를 받은 오스틴은 93.1%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올해 골든글러브 최다 득표와 득표율을 장식했다.

2루수 골든글러브는 키움 김혜성의 몫이 됐다. 2021년 유격수 부문 수상자인 김혜성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루수 골든글러브를 품었다. 김혜성은 피어플레이상 수상자라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올 시즌 한화를 넘어 국가대표 4번 타자로 발돋움한 노시환은 3루수 부문에서 생애 첫 황금장갑을 들어 올렸다. 9번째 수상을 노렸던 SSG 최정은 '홍련왕' 노시환의 벽에 막혔다.

가장 치열하게 경쟁이 전개됐던 유격수 부문에서는 LG 오지환이 우승 프리미엄을 더해 '황금장갑'을 가져갔다. 오지환이 154표(52.9%)를 차지한 가운데 박찬호가 120표(41.2%)를 얻으면서 아쉽게 첫 골든글러브 수상을 다음으로 미뤄야 했다.

외야 세 자리는 LG 홍창기, 삼성 구자욱, NC 박건우로 채워졌다.

'우승팀 외야수' 홍창기는 출루율(0.444)·득점(109점) 1위에 오르며 외야에서 가장 많은 258표를 얻었다. 박건우는 SSG 길레르모 에레디아를 따돌리고 첫 골든글러브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각 부문 수상자에게는 골든글러브와 함께 500만 원 상당의 야구용품 구매권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리디아 고·제이슨 데이 혼성 2인1조 골프대회 우승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가 제이슨 데이(호주)와 호흡을 맞춘 그랜드 스탠턴 인비테이셔널(총상금 400만달러)에서 우승했다.

리디아 고와 데이는 11일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부론 골프 클럽의 골드 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6개를 합작해 6언더파 66타를 쳤다.

최종 합계 26언더파 190타를 기록한 두 선수는 한 타 차 1위로 대회를 마치고 우승 상금 100만달러(13억2000만원)를 나눠 가졌다.

올해 처음 열린 이 대회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선수들이 남녀 한 쌍으로 팀을 이루는 방식으로 총 16개 팀이 출전했다.

1라운드는 각자 샷을 한 뒤 공을 하나 골라 다음 샷을 치는 스크램블 방식, 2라운드는 공 하나를 번

갈아 치는 포섬 방식으로 치러졌다.

3라운드는 각자 티샷을 한 뒤 두 번째 샷부터 파트너의 공으로 플레이해 더 나은 점수를 팀 성적으로 삼는 변형 포섬 방식으로 진행됐다.

1라운드를 공동 4위(14언더파 58타)로 시작한 리디아 고와 데이는 2라운드에서 6타를 줄여 단독 1위로 올라섰고, 마지막 날 노보기 행진으로 선두 자리를 지켰다.

준우승은 25언더파 191타를 친 브룩 헨더슨·코리 코너스(이상 캐나다), 3위는 루드비그 아베리·마들렌 샥스트룀(이상 스웨덴·26언더파 192타)이다.

올해 우승이 없던 리디아 고는 이벤트 대회 트로피로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랠다. 그의 2023시즌 최고 성적은 10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3위다.

/연합뉴스

전남도체육회 청소년스포츠안전교실 2회 연속 우수기관

전남도체육회가 2023년도 청소년스포츠안전교실 공모 사업 성과에서 2회 연속 우수기관상을 받았다.

도체육회는 최근 성남에서 열린 2023 제2회 스포츠안전의 밤에서 공모사업 부문 2회 연속 우수기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청소년스포츠안전교실은 스포츠안전재단이 스포츠 안전을 기반으로 ▲스포츠 참여 기회 제공 ▲스포츠 체험을 통한 성취감 및 도전의식 함양 ▲스포츠 안전 관습 형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지난 4월 실시한 공모에 선정돼 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도체육회는 평소 접하기 어렵지만 청소년들의 호응도가 높은 요트 체험 및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선정해 전남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업을 육지 소재 농촌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인 게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2022년 한 종목(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공모에 선정된 보성비봉마리나요트클럽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스포츠안전교실의 사업 취지를 최적화하고,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사업을 진행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 사업은 총 4회에 걸쳐 장흥·안양·화순·도곡중·영암·신북중·나주·한아름초·목포부설초·나주·다도초·순천·낙안초·보성·조성남초·장흥초·별교·낙성초 학생 16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